

WEBVTT

00:00:30.646 --> 00:00:31.520

안녕하십니까?

00:00:31.620 --> 00:00:33.931

인문학 살롱의 유혜선입니다.

00:00:34.031 --> 00:00:37.531

이번 시간에는 남자는
무엇으로 사는가라는

00:00:37.646 --> 00:00:39.792

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
한번 해 볼까 합니다.

00:00:39.944 --> 00:00:42.268

이 시대의 남자는
무엇으로 사는가요?

00:00:42.401 --> 00:00:44.286

어떤 힘에 의해서 사는가요?

00:00:44.386 --> 00:00:48.187

요즘 상대적으로 우리
여성들의 역할이 넓어지고

00:00:48.287 --> 00:00:53.231

또 권위와 열정이 많이 사회적으로
인정받고 있기 때문에

00:00:53.331 --> 00:00:56.674

곧이 축소되는 건 아니지만
상대적으로 남자들이

00:00:56.808 --> 00:00:58.177

많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.

00:00:58.326 --> 00:01:03.653

더군다나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
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 때는

00:01:03.753 --> 00:01:08.414

우리 남자들이 더욱더 위축이 되지
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

00:01:08.514 --> 00:01:12.185

그리고 많은 남자가 오늘날 힘들게

00:01:12.312 --> 00:01:15.176

고단한 직장생활과
사회생활을 하고 있죠.

00:01:15.256 --> 00:01:17.483

이럴 때 우리 남자들은
무엇으로 사는가 하는

00:01:17.647 --> 00:01:20.189

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00:01:20.289 --> 00:01:23.972

제가 남자들을 대상으로 또는
중년이나 CEO를 대상으로

00:01:24.129 --> 00:01:28.752

강의할 때 제일 먼저 보여주는
화면이 일리야 레핀의

00:01:28.852 --> 00:01:32.046

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는
이 그림입니다.

00:01:32.146 --> 00:01:35.013

여러분, 이 그림을
잠시 한번 볼까요?

00:01:35.113 --> 00:01:38.667

이 그림을 보면 어떤
느낌이 드나요?

00:01:39.610 --> 00:01:44.947

이 일리야 레핀은 유럽의
혁명이 다 끝나고

00:01:45.047 --> 00:01:47.161

이 혁명이 러시아로 넘어가죠.

00:01:47.261 --> 00:01:51.737

러시아로 넘어갔을 때
러시아의 모든 민족 지도자,

00:01:51.837 --> 00:01:54.659

시인, 사상가, 지도자,
예술가 이런 사람들이

00:01:54.759 --> 00:01:59.156

다 아나스키, 민족주의자
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.

00:01:59.300 --> 00:02:04.120

그래서 이 일리야 레핀도
시인이면서 화가이면서

00:02:04.289 --> 00:02:09.205

민중 지도자로서 당당히
집을 비우고 백야를 다니면서

00:02:09.305 --> 00:02:12.167

아나스키 운동에
오랫동안 참여를 했던

00:02:12.267 --> 00:02:15.114

그런 민족 지도자
중의 한 사람입니다.

00:02:15.885 --> 00:02:21.364

그래서 이 그림의 주인공이
자신일 수도 있고요.

00:02:21.464 --> 00:02:26.090

집에 돌아왔을 때 이 그림을 보면

소파라든지 피아노라든지

00:02:26.190 --> 00:02:29.379

가정주부가 돌이나 있고
이런 분위기를 보면

00:02:29.479 --> 00:02:35.147

러시아의 중산층 가정이다, 잘사는
가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.

00:02:35.247 --> 00:02:40.291

그런데 저렇게 남루한 옷차림을
한 눈매가 살아 있는

00:02:40.423 --> 00:02:44.119

가장이 집에 들어왔을 때
자기가 없는 채로

00:02:44.244 --> 00:02:47.039

가정은 너무나 화목해
보이지만 자기 자신이

00:02:47.187 --> 00:02:49.202

들어갈 자리가 없더라는 거죠.

00:02:49.302 --> 00:02:53.957

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
오늘날 정말 산업 시대에

00:02:54.862 --> 00:02:59.194

성실한 일꾼으로 열심히 생활을
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

00:02:59.294 --> 00:03:03.174

이모작, 삼모작을 준비하면서
가정에 돌아왔을 때

00:03:03.274 --> 00:03:05.009

굉장히 어색하다는 거죠.

00:03:05.109 --> 00:03:08.066

그래서 삼식이, 사식이
이런 이야기도 나올 뿐만 아니라

00:03:08.166 --> 00:03:10.547

굳이 아버지를 부정하는
거는 아니지만

00:03:10.647 --> 00:03:15.213

아버지하고 같이 생활을 해 본
공동적인 문화가 없기 때문에

00:03:15.370 --> 00:03:16.574

어색한 거죠.

00:03:16.741 --> 00:03:19.423

부인도 하루 종일 집에
있는 남편이 어색하고

00:03:19.523 --> 00:03:23.662

아이들도 그냥 아버지가

불편하고 어색하다는 거죠.

00:03:23.762 --> 00:03:27.825

그래서 이런 아버지에 대한
부재, 아버지에 대한 어색함

00:03:27.925 --> 00:03:32.575

이런 것들을 일리야 레핀은
아무도 그 아버지를

00:03:32.675 --> 00:03:35.568

가정에서 기다리지 않지
않았나 하는 느낌을

00:03:35.730 --> 00:03:39.036

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

00:03:39.136 --> 00:03:43.109

그리고 노동은 신성한
것만은 아니더라는

00:03:43.281 --> 00:03:49.125

귀스타브 쿠르베의
돌 깨는 사람 그림을 한번 보세요.

00:03:49.177 --> 00:03:51.738

아버지가 굉장히 나이가
든 것 같죠?

00:03:51.910 --> 00:03:53.351

중년을 넘어선 것 같은데.

00:03:53.451 --> 00:03:58.110

왜냐하면 어깨가 구부정하고
다리를 꼬고 앉아서 돌 깨는,

00:03:58.281 --> 00:04:01.987

그 당시에는 이렇게 돌을
깨야지만 일반 사람들이

00:04:02.087 --> 00:04:06.712

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,
일상을 해결할 수 있는 모습.

00:04:06.812 --> 00:04:11.044

그런데 이런 그림이 사실주의적인
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.

00:04:11.239 --> 00:04:14.722

그 당시 이런 그림이
그림의 소재로 올라왔다는

00:04:14.822 --> 00:04:19.117

그 자체가 대단히 변혁적인
그런 시대인데요.

00:04:19.217 --> 00:04:21.017

과거에는 어땠어요?

00:04:21.117 --> 00:04:25.211

그림이라 그러면 역사적인 그림,

신화적인 그림, 영웅적인 그림

00:04:25.311 --> 00:04:29.078

이런 것만 그림이라고 했지
이런 일상에 노동자의 삶을

00:04:29.242 --> 00:04:30.943

그림으로 그리지는 않았죠.

00:04:31.043 --> 00:04:34.363

그런데 귀스타브 쿠르베라는
사람이 이런 그림을

00:04:34.463 --> 00:04:37.888

당당히 사회에 그림의
소재로 올려놓음으로써

00:04:38.039 --> 00:04:40.321

굉장히 주목받는 그림이 됐는데요.

00:04:40.421 --> 00:04:45.882

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이 시대를
저렇게 나이가 들었음에도

00:04:45.982 --> 00:04:50.642

불구하고 일을 죽을 때까지
손에서 놓지 못하는

00:04:50.742 --> 00:04:55.195

가장의 힘든 일상 이런 거를 보여주지
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

00:04:55.330 --> 00:05:02.341

색깔도 굉장히 어둡고 구멍 뚫린
밀짚모자라든지 남루한 옷이라든지

00:05:02.441 --> 00:05:07.676

그다음에 전체적인 배경이 굉장히
암울하고 힘든 노동자의 삶

00:05:07.776 --> 00:05:10.959

그리고 그 뒤에 아들은
어린 나이인데 학교를 가야 할

00:05:11.111 --> 00:05:13.144

나이인 것 같은 데도
학교도 가지 못하고

00:05:13.276 --> 00:05:17.412

아버지를 도와야 하는 또 아버지와
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

00:05:17.545 --> 00:05:23.274

아버지와 아들의 숙명적인 모습이
이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

00:05:23.374 --> 00:05:31.607

정말 남자들에게 부여된 노동
이게 굳이 신성한 것만은 아니구나.

00:05:31.742 --> 00:05:35.191

참 남자들을 힘들게 하고
아프게 하는구나 하는

00:05:35.339 --> 00:05:37.371
느낌을 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00:05:37.471 --> 00:05:41.222
희망이라고는 저 끝에 보이는
조그마한 귀퉁이에 보이는

00:05:41.362 --> 00:05:43.014
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.

00:05:43.114 --> 00:05:45.871
그래서 이 두 남자는
평생을 저렇게 고단하게

00:05:45.971 --> 00:05:50.066
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
그런 숙명적인 남자의 모습을

00:05:50.166 --> 00:05:53.967
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
있을 것 같습니다.

00:05:54.961 --> 00:05:59.814
또 유대인들의 탈무드를
보면 남자의 인생을

00:05:59.914 --> 00:06:03.447
7단계로 이렇게 묘사했더라고요.

00:06:03.547 --> 00:06:08.330
참 남자의 일생을 동물에
비유한 거에 대해서 애잔한데요.

00:06:08.497 --> 00:06:11.617
그런데 연령대별로 이렇게
비교한 걸 보면

00:06:11.717 --> 00:06:15.373
남성들이 살아가야 할 힘듦과 고단함

00:06:15.473 --> 00:06:19.180
이런 것들을 아주 절묘하게 잘
비교했다고 생각이 듭니다.

00:06:19.280 --> 00:06:24.036
처음에 1살, 태어날 때는
아들 태어났다고

00:06:24.179 --> 00:06:26.038
임금님처럼 떠받들잖아요.

00:06:26.144 --> 00:06:31.089
딸보다는 훨씬 더 임금님처럼
이렇게 떠받들면서 모시듯이

00:06:31.247 --> 00:06:39.451
밥도 주고 환영을 받는 존재였지만
2살 정도 되면 아들은 어때요?

00:06:39.551 --> 00:06:41.079
돼지처럼 먹는 것밖에 모르잖아요.

00:06:41.179 --> 00:06:45.987
먹고 자고 아무 데나
흙탕물이든 어디든 뒹구는

00:06:46.131 --> 00:06:49.088
이런 돼지와 같은 삶에 비유하고요.

00:06:49.214 --> 00:06:55.833
그다음에 10살에서 20대 전까지는
어린 양의 삶에 비유합니다.

00:06:55.933 --> 00:06:56.954
어린 양은 어때요?

00:06:57.054 --> 00:06:58.001
천방지축이잖아요.

00:06:58.124 --> 00:07:01.126
아무 데나 멋대로 놀고
웃고 떠들고 다니고

00:07:01.226 --> 00:07:05.260
이런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
같은 이런 시대를

00:07:05.360 --> 00:07:09.564
어린 양에 비유했다면
그다음에 18살이 지나서

00:07:09.664 --> 00:07:15.922
20대 청춘의 시대는 철들지 않는
망아지에 비유하고 있더라고요.

00:07:16.074 --> 00:07:18.051
그래서 자기는 다 자랐다.

00:07:18.151 --> 00:07:19.134
나는 이제 성년이다.

00:07:19.234 --> 00:07:21.223
이렇게 힘자랑도 하고
나도 어른이야.

00:07:21.323 --> 00:07:24.903
이렇게 해 보지만 웬지
모르게 철들지 않는

00:07:25.003 --> 00:07:27.650
그래서 남자들은 영원히
철들지 않는 것 같아

00:07:27.750 --> 00:07:29.769
또는 죽을 때가 돼야 철이 든다.

00:07:29.869 --> 00:07:31.765
이런 이야기도 어른들이 하시잖아요.

00:07:31.932 --> 00:07:36.662

그래서 철들지 않는
망아지와 같은 삶을 살다가

00:07:37.442 --> 00:07:43.187

20대 후반부터 30대에
짜을 만나고 취직을 하고

00:07:44.932 --> 00:07:49.745

자녀가 생기고 결혼을
하게 되면 한 가장으로서

00:07:49.845 --> 00:07:54.850

등에 짊어져야 할
무게가 상당히 많죠.

00:07:54.950 --> 00:07:57.022

그래서 이걸 당나귀에 비교합니다.

00:07:57.122 --> 00:08:02.944

당나귀는 얼마나 많은 붓짐을 메고
먼 길을 힘들게 가야 하잖아요.

00:08:03.102 --> 00:08:10.726

그래서 결혼한 뒤에서 중년까지는
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

00:08:10.826 --> 00:08:16.280

당나귀의 등에는 하나씩 하나씩
무거운 붓짐을 짊어져야 하는

00:08:16.380 --> 00:08:21.220

이런 고단한 남자들의
삶이라면 중년에 들어가면

00:08:21.320 --> 00:08:24.185

저는 이제 참 와닿던데요.

00:08:24.349 --> 00:08:27.077

중년에 들어가면 개에 비유했어요.

00:08:27.177 --> 00:08:32.376

한 50대, 60대 되면 뭔가
세상에 대한 이치도 터득하고

00:08:32.476 --> 00:08:37.276

뭔가 요령도 생기고 경제적으로
조금 안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

00:08:37.376 --> 00:08:42.633

또 가족의 부양으로부터 한 개,
두 개씩 당나귀에 얹혀 있던

00:08:42.790 --> 00:08:46.446

붓짐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
약간 비굴하기도 하고

00:08:46.546 --> 00:08:51.682

약간 기회주의적이기도 하면서
자기 처세술에 뛰어난

00:08:51.782 --> 00:08:55.571
개 같은 이런 삶을 산다고 합니다.

00:08:55.671 --> 00:09:01.219
그런데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
것은 노년에 원숭이와 같은

00:09:01.319 --> 00:09:07.362
삶을 산다고 이렇게 탈무드에는
이야기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.

00:09:07.462 --> 00:09:12.425
나이가 많이 든 70대,
80대의 할아버지나 남편이나

00:09:13.863 --> 00:09:18.603
남자들하고 친하게 지내기는
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

00:09:18.703 --> 00:09:22.264
할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내는
손자들도 쉽지 않고

00:09:22.364 --> 00:09:25.433
물론 용돈을 주거나 이렇게
하면 순간적으로는

00:09:25.533 --> 00:09:27.790
할아버지 하고 품에
안기기는 하겠지만

00:09:27.890 --> 00:09:32.188
살아온 경륜만큼 쌓인
아집이나 까탈스러움

00:09:32.288 --> 00:09:37.683
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는 많은
사람이 결코 다가오지 않는

00:09:37.783 --> 00:09:41.659
그래서 원숭이처럼 자기
스스로 어린아이처럼

00:09:41.759 --> 00:09:46.276
사람들 앞에 재롱을
피우면서 과시를 해 보지만

00:09:46.376 --> 00:09:49.804
결국 사람들은 그냥
바나나 하나 던져주면서

00:09:49.904 --> 00:09:54.085
너 혼자 놀아라 하고 원숭이에게
바나나를 던져주듯이

00:09:54.185 --> 00:10:00.586
이렇게 쓸쓸하게 혼자
남겨지는 원숭이와 같은 삶이

00:10:00.686 --> 00:10:06.046
오늘날 이 시대에 남자들이 살아가는

마지막 모습이 아닐까 하는

00:10:06.146 --> 00:10:09.831

생각이 들어서 정말 아련하고
짙한 마음이 들었습니다.

00:10:09.931 --> 00:10:17.709

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
저는 거의 동시대의 여자이고

00:10:17.809 --> 00:10:21.785

또 동시대의 아픔을 같이
살아온 남자들이기 때문에

00:10:21.885 --> 00:10:23.813

공감을 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.

00:10:23.913 --> 00:10:27.593

이해하기도 하고 이랬으니까
우리가 잘해 줘야지 하는

00:10:27.717 --> 00:10:31.424

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
제가 이 시를 보면서

00:10:31.524 --> 00:10:35.769

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를
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

00:10:35.869 --> 00:10:39.351

느낌이 들어서 제가 대한민국의
아버지들을 위해서

00:10:39.451 --> 00:10:44.113

이 시를 읽어드리면 정말
마음으로 많이 눈물을 흘리는

00:10:44.275 --> 00:10:46.315

이런 사례를 봤습니다.

00:10:46.415 --> 00:10:52.059

이건 고등학교 학생이
출품작으로 냈던 작품인데요.

00:10:52.159 --> 00:10:55.700

전라북도 교육감 수상
작품이라고 합니다.

00:10:55.800 --> 00:10:57.854

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
제가 이 시를

00:10:57.997 --> 00:11:00.030

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1:01.769 --> 00:11:06.920

우리 집엔 자정이 다 되어서야
들어오는 머슴 하나 있습니다.

00:11:07.020 --> 00:11:10.696

그는 자기를 무척 닮은

아이들의 잠자리를 살피주고는

00:11:10.796 --> 00:11:13.893
지친 몸을 방바닥에 부립니다.

00:11:13.993 --> 00:11:19.165
아침, 덜 깬 눈을 부비며 우리
형제를 학교라는 곳까지 데려다주고

00:11:19.265 --> 00:11:23.801
허름한 지갑 속에서 몇 장
안 되는 구겨진 종이돈을

00:11:23.901 --> 00:11:25.709
살점처럼 떼어 줍니다.

00:11:25.809 --> 00:11:30.954
그리고 그는 일자리로 가서 개미처럼
밥알을 모으며 땀을 흘립니다.

00:11:31.054 --> 00:11:35.770
그러기를 20여 년
지칠 때도 되었는데

00:11:35.870 --> 00:11:40.465
이제는 힘 부칠 때도 되었는데
오늘도 그는 작은 체구에

00:11:40.565 --> 00:11:45.951
축 처진 어깨를 툭툭 털고는
우리에게 주름진 웃음을 보이지만

00:11:46.051 --> 00:11:51.899
머슴 생활 너무 힘들고 서러울 때
우리에게 이따금씩 들키는

00:11:51.924 --> 00:11:58.498
눈물방울들 그 속에는 파들파들 별처럼
떨고 있는 가족의 눈망울들.

00:11:58.658 --> 00:12:02.902
그 머슴을 우리는
아버지라 부릅니다.

00:12:03.525 --> 00:12:07.508
정말 이 시대의 아버지를
머슴으로 부르는

00:12:07.608 --> 00:12:12.046
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
애잔하고 짝해 옵니다.

00:12:12.146 --> 00:12:14.993
여러분의 아버지, 아버지의
남편은 어떠십니까?

00:12:23.480 --> 00:12:28.008
그렇다면 이 시대 남자는
과연 무엇으로 사는가?

00:12:28.108 --> 00:12:30.986

우리 앞 시간에 여자는
무엇으로 사는가를

00:12:31.086 --> 00:12:35.418
7가지 열망에 대한 콤플렉스로
정리해 봤는데요.

00:12:35.518 --> 00:12:39.309
우리 남자들도 이런
7가지에 대한 열망과

00:12:39.446 --> 00:12:42.430
거기에 미치지 못하는
콤플렉스로 살고 있더라.

00:12:42.530 --> 00:12:44.493
첫째, 장남 콤플렉스입니다.

00:12:44.593 --> 00:12:48.794
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
장남은 죄인입니다.

00:12:48.894 --> 00:12:53.418
보통 아들과 더불어서
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

00:12:53.518 --> 00:12:56.302
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
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

00:12:56.402 --> 00:12:57.594
주어지는 책임감.

00:12:58.696 --> 00:13:00.488
동생들한테 많이 양보해야 하고

00:13:00.588 --> 00:13:03.729
무조건 다 장남이 책임져야
하는 그런 죄인.

00:13:03.829 --> 00:13:08.323
그래서 장남 콤플렉스가 의외로
참 심각하게 많더라는

00:13:08.423 --> 00:13:09.613
그런 이야기가 있고요.

00:13:09.753 --> 00:13:13.641
그다음에 모든 아빠는
다 마찬가지로겠지만

00:13:13.741 --> 00:13:17.649
아까 우리 노동이 결코 신성한
것만은 아니더라 하는

00:13:17.810 --> 00:13:21.202
그림을 통해서 우리 봤지만
이 시대의 모든 아빠는

00:13:21.302 --> 00:13:26.138
무조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

만능 가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.

00:13:26.238 --> 00:13:30.244
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조건
다 해내야 하는 만능 가장.

00:13:30.344 --> 00:13:33.764
그러지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
콤플렉스를 가지게 되는 거죠.

00:13:33.864 --> 00:13:35.868
그리고 사내대장부 콤플렉스.

00:13:35.968 --> 00:13:40.218
내가 여자도 아닌 남잔데
모든 것을 다 내가 해야지 하는

00:13:40.384 --> 00:13:42.099
사내대장부 콤플렉스.

00:13:42.199 --> 00:13:44.416
그다음에 온달 콤플렉스입니다.

00:13:44.516 --> 00:13:48.403
온달 콤플렉스는 상대적으로
우리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

00:13:48.503 --> 00:13:54.015
활동영역에 넓어짐으로써
그 여성들에게 뭔가 순응하고 맞춰서

00:13:54.115 --> 00:13:58.710
평온하게 지내야 하다 보니까 약간
온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.

00:13:58.869 --> 00:14:01.907
그래서 내가 지금 남자가
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

00:14:02.035 --> 00:14:06.658
그런 비교감에서 오는 콤플렉스가
온달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고요.

00:14:06.758 --> 00:14:08.561
그다음에 외모 콤플렉스입니다.

00:14:08.661 --> 00:14:13.190
요즘 남자들도 상당히 외모에
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

00:14:13.329 --> 00:14:16.455
이런 욕심과 욕망이 상당해요.

00:14:16.555 --> 00:14:18.581
그리고 거기에 대해서
노력도 많이 하기 때문에

00:14:18.755 --> 00:14:21.792
거기에 미치지 못하면
또 콤플렉스를 느끼게 되죠.

00:14:21.892 --> 00:14:26.189

그다음에 지적 콤플렉스,
성 콤플렉스는 남녀를 불문하고

00:14:26.289 --> 00:14:29.294

한 인간으로서 완벽하고자
하는 그런 욕망.

00:14:29.394 --> 00:14:31.720

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
느끼는 콤플렉스.

00:14:31.820 --> 00:14:35.851

이렇게 해서 이 시대의
남자들도 7가지 콤플렉스로

00:14:36.015 --> 00:14:37.951

살아가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.

00:14:38.435 --> 00:14:39.200

감사합니다.